



# 한국러시아문학회보

ВЕСТНИК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РУС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SISTS NEWSLETTER

통권 제51호  
2016 December Vol.51

## Contents

권두언	1
논문발표회 및 학술대회 소식	3
학회지 발간	4
회원동정	4
신간소개	5
공지사항	9
회비납부	9

발행일 2016. 12. 31  
발행처 한국러시아문학회  
발행인 이규환

## 권두언

### 불확실성의 21세기에 맞는 10월 혁명 백주년을 생각하며

올해는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지 백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학회는 세계사의 기념비적인 이 사건의 의의를 재조명하는 기획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러시아 관련 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도 백주년을 맞는 러시아 혁명을 재조명하게 됩니다.



심성보 (건국대)

러시아 혁명을 통해 현실에서 이루어진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실험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동서 냉전의 구도 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당시의 일반적인 관측과는 달리, 급작스런 역사의 격동 속에서 1991년 12월 벨라페자 조약에 의해 소비에트 연방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현실 사회주의진영이 붕괴하면서 러시아 혁명은 실패한 실험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는 것으로 보였지만, 러시아 혁명이 내건 과제와 목표, 성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모토로 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잠시나마 거침없는 질주를 하더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작년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서 보듯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이 글로벌 리더가 부재한 시대를 표현한 G0 시대가 일시적인 과도기일지, 혹은 새로운 세계질서 양상으로 고착화될지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단일경제권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치-경제연합체인 유럽연합은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연합하여 기도한 중동 질서재편이 꺾이면서 중동지역의 이주민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생겐 조약의 틀이 위협받고 있으며, 극우주의의 부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책에 따라 미국인은 미국에서 생산한 물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보호 무역을 강화하며, 세계 전체를 이끌 아젠다는 포기한 채 오로지 자국만을 위한 정책에 몰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차칭 타칭 G2의 일원으로 부상하며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는 중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도 중국몽(中國夢)이라는 자국 이기주의의 틀에서는 새로운 전 인류적 이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한국러시아학회보

ВЕСТНИК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РУС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SISTS NEWSLETTER

## 권 두 언

러시아는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을 출범시키며 <유라시아>라는 새로운 화두를 부각시켰습니다. 러시아는 국제고유가의 추락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유라시아>의 중심 국가로서 <강한러시아>를 꾸준히 추진해나가며, 시리아 사태, 터키와의 <블루 스트림> 사업 체결, 필리핀과의 군사협력강화 등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라는 새 지형이 단순히 구 소비에트 연방 지역 통합을 위한 야욕에 그칠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공동체 건설의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갈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과 서를 동시에 바라보는 쌍두독수리 국가문장 모양대로 러시아가 그 어느 주요 강대국보다 원대한 실험을 계속해나가고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작년 말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메릴린치가 발간한 신흥국 경제 안정성 순위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저조한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재정정책, 부채운용 수준의 높은 지표를 바탕으로 중국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유라시아> 중심국가로서의 전진 이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호는 박근혜-최순실 정권이 철학과 비전도 없이 내걸었던 소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이 자취도 없이 소멸되고, 한-미-일 동맹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능사라 생각하여 추진한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관계에는 적신호가 켜졌으며,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트집 잡아 협박하는 일본과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압박하는 미국 앞에서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러시아 혁명 백주년이 되는 올해 벽두에 그간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서 마땅히 내세워야 할 이상과 원칙, 지향과 비전을 제대로 세워왔는지, 양극화로 귀결된 외형적 경제성장에만 광분해온 것은 아닌지, 아직도 냉전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유라시아 대륙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고 삼나라인양 해양세력의 일원으로만 자기를 규정해온 것은 아닌지 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 지난 10월 8일에 제6차 러시아학 관련 국내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가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날다, 펼치다, 만나다>라는 주제로 문학, 어학, 지역학, 문화-통번역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 지난 12월 17일에는 제78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와 코어 사업단과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제1세션은 김정일 회원(경북대)의 사회로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코어 사업단의 학술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거대서사대 유토피아의 작은 목소리 - 러시아 여성작가의 글쓰기 전략>을 주제로 윤영순 회원(경북대)이 발표를, 서광진 회원(서울대)이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불카코프의 <백위군>에 나타난 집의 공간적 의미와 여주인의 형상>을 주제로 한 두 번

째 순서에서는 송동섭 학생(경북대)이 발표를, 백승무 회원(서울대)이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한국러시아문학회 논문발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어학분과에서는 이수현 회원(서울대)이 <러시아어 학습자 코퍼스 연구 - 구축과 활용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김진규 회원(고려대)이 사회를, 박현아 회원(고려대)이 토론을 맡아 수고해주셨습니다. 문학 분과에서는 <유로지비의 귀: V. 메이예르홀트의 실현되지 못한 공연 <보리스 고두노프>>를 주제로 김혜란 회원(고려대)이 발표를, 백용식 회원(충북대)이 사회를, 이승억 회원(경북대)이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논문발표회가 끝난 후에는 최선 회원(고려대)께 정년퇴임 기념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 학회지 발간

▶ 8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54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제54집에는 문학, 언어학, 문화 분야의 논문 15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혁명에 관한 논문으로는 박혜경 회원(한림대)의 [솔로호프와 혁명, 그리고 문학 : 카자크 작가인가 소비에트 작가인가] 외 1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문학 분야에는 김혜란 회원(고려대)의 [불가코프의 푸시킨 : 『거장과 마르가리타』 속 푸시킨의 형상과 작품들]을 비롯한 논문 7편이, 언어학 분야에는 김보라 회원(한양대)의 [탈 소비에트 벨라루스인들의 언어정체성 변화 양상]을 비롯한 논문 3편이, 문화 분야에는 천호강 회원(경북대)의 [아방가르드와 말레비치의 건축적 통찰] 외 2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11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55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제55집에는 문학, 언어학, 문화 분야의 논문 11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최선 회원(고려대)의 퇴임 특별 논문으로 [「데메트리우스」와 「황제 보리스와 그리슈카 오텔레피에프에 대한 희극」]이 재수록 되었으며, 박선영 회원(충북대)의 [안나 아흐

마토바와 혁명 : ‘달리 생각하는 자’의 혁명 살아내기]를 비롯한 혁명 관련 논문 2편이 수록되었습니다. 문학 분야에는 권정임 회원(선문대)의 [건강한 뷔르거 : 문학 및 미술작품을 통한 19세기 ‘소시민계층’의 제고]를 비롯한 논문 4편이, 언어학 분야에는 길윤미 회원(경북대)의 [러시아 언어와 문화에서 인텔리겐치아 개념에 관한 소고]를 비롯한 논문 2편이, 문화 분야에는 김진영 회원(연세대)의 [한국 근대기의 러시아 여행과 시베리아 담론]을 비롯한 논문 2편이 각각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17년 2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56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 도착 예정일이 경과했음에도 학회지를 수령하지 못하신 회원은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재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학회비를 미납하여 학회지를 우송받지 못한 회원께서는 미납된 학회비를 납부하시고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지에 변동이 있는 회원께서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karusist@naver.com](mailto:karusist@naver.com))

## 회원동정

▶ 김형섭 회원(중앙대)이 2016년 9월 1일 부로 중앙대학교 유렵문화학부 러시아어문학전공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 조주관 회원(연세대)이 번역한 조지아(舊 그루지야)의 국민시인 쇼타 루스타벨리의 『호피를 두른 용사』의 한국어 번역본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호피를 두른 용사』는 세계 4대 장편 서사시(『일리아드』,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가운데 하나로 인류문화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 교원 임용, 학위 취득, 결혼, 연구 활동을 위한 출국이나 귀국 등의 소식을 총무이사(3wall@hanmail.net), 총무간사 (karusist@naver.com)

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물론 주변 회원들의 소식도 좋습니다.

## 신간소개

(2016년 6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간된 책을 인터넷 교보문고 및 출판사 제공 서평과 함께 올립니다.)



1. 『메이에르홀트의 연출세계 1-4』 (프 세볼로트 에밀리에비치 메이에르홀트 지음, 김혜란, 박현섭, 백승무 옮김, 한국문화사, 2016년 8월 20일 출간)

『메이에르홀트의 연출세계』 제1권-제4권. 스타니슬랍스키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연출가로 평가받는 메이에르홀트의 연극론과 연출이론을 집대성한 책이다. 『메이에르홀트의 연출세계』에는 그의 논문과 연설문, 대담, 편지 등 연극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총망라되어 있다. 1968년 출간된 『메이에르홀트의 연출세계』는 그 방대한 양과 충실한 해석으로 오늘날까지도 메이에르홀트의 연출세계를 조망하는 최고의 저서로 평가받고 있다.



2. 『파우스트 박사의 오류』 (김연경 지음, 장, 2016년 10월 7일 출간)

김연경 소설집 『파우스트 박사의 오류』. 소설집이지만 구성이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에 있는 네 편의 소설은 2012년 이후로 쓰인 것이고, 2부의 네 편은 2010년 이전의 작품들이다. 작가는 소설들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시간과 문체의 차이를 강조했다고 말한다. 김연경은 이번 작품집에서 등단 20년 작가의 공력을 마음껏 펼친다.

3. 『서양사 속 빈곤과 빈민』 (민유기, 홍용진, 기계형, 남성현, 박진빈, 박찬영, 안상준, 오승은, 이강의, 이정재, 이영석, 허구생, 한국서양사학회 (기획) 지음, 책과함께, 2016년 12월 31일 출간)



『서양사 속 빈곤과 빈민』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서양사 속에서 빈곤과 빈민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해결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를 고찰한 결과물이다. 의식주와 신체적 건강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생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층은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근대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되어왔다. 반면에 상대적 빈곤층, 흔히 사회 구성원의 평균소득인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소득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 고용, 주거, 건강, 복지, 정치·사회적 권리 행사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서의 배제와 차별 역시 빈곤 문제와 관련된단.



4. 『신화시학 1, 2』 (엘레이자르 모이세예비치 멜레틴스키 지음, 박종소, 최행규, 차지원 옮김, 나남, 2016년 12월 15일 출간)

멜레틴스키의 신화론은 구조주의를 넘어 문학과 신화를 연관 짓고 양자 간의 공식적, 통시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즉, 문학의 발생과 진화를 신화로부터 찾고 이후의 문학 장르 속에서 신화적 모티브와 플롯을 추적하며 신화가 인류 사유의 원형으로 남았음을 『신화시학』 속에 증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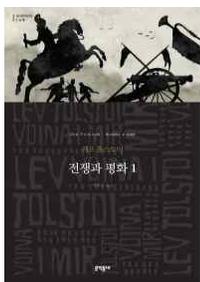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19세기와 20세기의 신화 이론을 분석한다. 제2부는 제1부의 논의를 재조명하여 원시 및 고대신화의 일반적 특성을 살피며 신화와 문학의 근본적이며 본격적인 관계에 접근한다. 제3부는 문학과 신화의 관계에서 역사적인 탈신화화

(대표적으로 계몽주의와 사실주의)와 재신화화(낭만주의와 모더니즘)의 과정을 소개하고 이후 20세기 문학, 특히 소설에서의 신화주의의 개화와 발전을 이야기한다.



**5. 『Пушкин: десять очерков о русском романтизме』 (김진영 지음, Петрополис, 2016년 10월 출간)**

한국어판 연구서 『푸슈킨: 러시아 낭만주의를 읽는 열 가지 방법』(서울대학교출판부, 2008)를 바탕으로 한 러시아어 번역본이 페트로폴리스 출판사의 <Новая и старая русская классика> 시리즈로 2016년 10월 출판되었다.



**6. 『전쟁과 평화 1』 (레프 톨스토이 지음, 박형규 옮김, 문학동네, 2016년 10월 10일 출간)**

나폴레옹 침공과 조국전쟁 등의 굵직한 사건과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수많은 개별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과 죽음, 새로운 삶의 발견을 그린 일대 서사시적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 제 1권. 1805년부터 1820년까지 15년에 걸친 러시아 역사의 결정적 시기를 재현한 소설로, 톨스토이의 사상과 철학이 남김없이 녹아 있는 방대하고 복잡한 작품이다.

이번 번역본은 1970년에 『전쟁과 평화』의 첫 번역을 선보였던 국내 러시아문학 연구의 선구자 박형규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미려하고 충실한 번역에 또 한 번의 엄정한 원전 확인을 거치며 새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고 시대의 감각을 불어넣었다. 세계적 작가의 극찬 속에 러시아 유산을 넘어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이 된 작품을 모두 4권으로 만나볼 수 있다.

**7. 『지하로부터의 수기, 백야, 뿔준조프 외』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 지음, 계몽준, 석영중, 조유선, 김숙영, 홍지인, 이명현, 허효영 옮김, 열린책들, 2016년 11월 30일 출간)**

열린책들이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교보문고와 합작으로 재판한 책으로 이번 특별한정판은 기존 세계문학으로 출간되었던 장편과



단편 소설들을 합본해 우아한 디자인과 함께 선보인다. 상세한 해설과 작가 연보로 독자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 가운데 가장 독창적이라는 평을 받으며 작가 창작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로부터의 수기」, 어슴푸레함만이 계속되는 뻬체르부르크의 여름밤을 무대로 순수한 청년이 겪는 꿈과 현실을 분간할 수 없는 기묘한 사랑을 묘사한 소설 「백야」, 전기적 사실들, 즉 공상적 사회주의의 수용과 인간 본성의 탐구, 신문 칼럼의 집필 등을 반영한 중단편 「남의 아내와 침대 밑 남편」, 「약한 마음」 등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8. 『지루한 이야기』 (안톤 체호프 지음, 석영중 옮김, 창비, 2016년 12월 5일 출간)**

단편소설의 제왕 체호프의 대표 중단편선 『지루한 이야기』. 이 선집에는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중편 「지루한 이야기」(1889)와 함께, 기괴함과 사실주의가 결합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작 「검은 옷의 수도사」(1894), 그리고 가장 완성도 높은 대표작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1899) 등 3편의 작품이 묶여 있다.



**9. 『한국 슬라브학 30년사』 (김현택(역음), 송준서(역음), 석영중, 손재은, 정하경, 전혜진, 김상현, 장세호, 성원용, 홍석우 지음, 한울이카데미, 2016년 10월 28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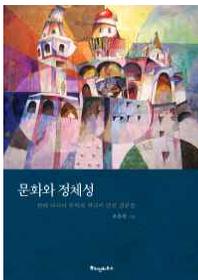
『한국 슬라브학 30년사』는 슬라브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문학, 어학, 경제, 역사 등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분야의 전문기인 필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한국에서 이들 연구가 전개된 발전사를 다루며,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각 분야의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전망한다. 권두언으로 시작해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러시아문학, 러시아어학, 러시아어 교육학, 러시아

문화, 러시아 정치, 러시아 경제, 러시아 역사, 동유럽학 등 슬라브 학의 중심을 이루는 러시아에 관한 연구부터 과거 사회주의국가가 밀집한 동유럽에 관한 동유럽학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10. 『도스토예프스키 아저씨네 게스트하우스』 (김성호, 조미경(도음글) 지음, 주니어김영사, 2016년 12월 30일 출간)**

〈인성의 기초를 잡아주는 처음 인문학동화〉 시리즈는 창작동화 속에 빵집 주인, 동물병원 원장, 축구 감독, 과일가게 아저씨, 헌책방 할아버지, 분식점 주인, 고물상 주인 등 위인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웃으로 등장하여 어린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일깨워 주는 새로운 콘셉트의 동화이자 자기계발서이다. 『도스토예프스키 아저씨네 게스트하우스』 편에서는 게스트하우스에 일하러 온 도스토예프스키가 행복하게 사는 법을 말해준다.



**11. 『문화와 정체성』 (조유선 지음, 뿌쉬킨하우스, 2016년 8월 31일 출간)**

이 책은 ‘문화와 정체성’이라는 큰 틀에서 현대 러시아 문학과 연극, 그리고 문화학의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변화상과 그 함의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혼돈과 위기의 국면을 넘어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를 ‘문화의 사회통합적 역할’이란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또한 특정 작가의 텍스트 분석을 넘어, 역사적 산물로서 텍스트를 마주하고 텍스트가 사회와 관계 맺는 여러 접점들을 문화연구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때론 텍스트가 탄생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그것이 생산되고 향유되는 체계에 몰두하고, 때론 타 장르와 교류해 재해석되는 맥락을 파헤치며 ‘작가(연출가, 자아)-텍스트(무대, 사회)-독자(관객, 타자)’로 연결되는 총체적 소통망을 읽어 내려 시도했다. 이를 통해 문화와 정체성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문학고전의 보편적 가치와 ‘지금 이곳’에서의 문화론적 쓰임새를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12. 『두센카』 (이폴리트 보그다노비치 지음, 조주관 지음, 지식음반드느지식, 2016년 6월 27일 출간)**

보그다노비치의 운문 소설 『두센카』. 신화를 기초로 만들어진 유사 서사시(Mock Epic)라 할 수 있다. 에로스 신의 사랑에 대한 옛 신화를 익살스럽게 희화화한 작품이다. 러시아 18세기에 쓰인 소위 “유마” 시들 중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다. 여주인공의 이름은 라퐁텐(La Fontaine)이 쓰고 드미트리예프 마모노프가 1769년에 러시아어 번역판을 출판한 「프시케와 큐피드의 사랑」의 주인공 프시케(Psyche)로부터 따온 것이다.



**13. 『러시아 시 연구』 (최선 지음, 우물이있는집, 2016년 12월 2일 출간)**

이 책은 고려대학교 최선 교수의 ‘40년간의 러시아문학 연구’를 집성한 [러시아문학 연구 총서]의 첫 책으로 주로 러시아 시와 관련된 글들을 담고 있다. 이 글들은 19세기 사실주의 시의 대표인 네크라소프(1821-1877)의 시적 화자와 19세기 패러디 시를 다룬 논문들, 시 분석 방법에 대한 소개글 그리고 러시아 시 번역서에 붙인 글 저자가 기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발표했던 글들을 모은 책이다.



**14. 『20세기 러시아 노래시 연구』 (최선 지음, 우물이있는집, 2016년 12월 26일 출간)**

이 책은 고려대학교 최선 교수의 ‘40년간의 러시아 문학 연구’를 집성한 [러시아문학 연구 총서]의 두 번째 책으로 주로 20세기 러시아 노래시와 관련된 글들을 담고 있다. 이 글들은 스탈린 시대의 문학 정책과 문학 작품에 대한 글, 특히 스탈린 시대의 노래시와 스탈린 사후 러시아 음유시인에 대한 글들이다. 저자는 소련 시절의 노래시들에 대한 통시적 고찰과 함께 1930년대 노래시에서 여성 테마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심한 정치적 탄압 속에서도

폭넓은 청중을 가질 수 있었던 러시아 바르드(음유시인)들 특히 울리 김의 전쟁 노래에 스탈린 시대의 노래가 어떤 배경으로 가능했는지, 그리고 스탈린 시대를 살아간 시인 파스테르니크의 발자취와 스탈린 시대에 사회주의 리얼리즘 정책을 가장 잘 실천한 소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15. 「유럽문학 속 푸슈킨 연구」 (최선 지음, 우물이있는집, 2016년 12월 26일 출간)**

이 책은 고려대학교 최선 교수의 ‘40년간의 러시아 문학 연구’를 집성한 [러시아 문학 연구 총서]의 세 번째 책으로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라고 칭해지는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슈킨에 관한 글들을 담고 있다. 이 글들은 푸슈킨에 대한 소개, 한국에서의 푸슈킨 수용을 다룬 글, 푸슈킨과 20세기 러시아 작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글, 푸슈킨 작품론이다. 푸슈킨 작품론에서 저자는 유럽문학

작품과의 관계 속에서 푸슈킨 작품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푸슈킨과 셰익스피어의 안젤로를 비교하면서 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인간사의 복잡성과 인간 내면의 본성의 복잡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16. 「푸슈킨과 오페라」 (최선 지음, 우물이있는집, 2016년 12월 26일 출간)**

이 책은 고려대학교 최선 교수의 ‘40년간의 러시아 문학 연구’를 집성한 [러시아 문학 연구 총서]의 네 번째 책으로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슈킨이 관심을 가졌던 오페라나 그의 작품을 오페라로 만든 것들에 관한 글들을 담고 있다. 이 글들은 저자의 행복한 오페라 감상과 연결되어 있는 글들로서 영상 매체를 통해 마음껏 오페라를 듣고 볼 수 있게 되면서부터 쓰기 시작한 글들이다. 특히 저자는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만난 후 이 오페라와 체호프의 단편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귀부인」을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었다.

## 공지사항

### ▶ 『러시아어문학논집』 제56집 투고 안내

2017년 2월 25일 발간예정인 『러시아어문학논집』 제56집의 제출 마감일은 2017년 1월 15일입니다. 발간 후 회비를 납부한 회원님들께 발송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어문학논집』에 게재할 원고를 보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 140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37번길 22 안양대학교  
러시아어과 이기주 교수 연구실 내 한국러시아문학회 편집부  
rusistika@hanmail.net 계좌번호: 농협 302-3720-9266-81 이기주

### ▶ <평생 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

존경하는 학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의 지속가능성을 공고히 하고 학회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기한은 14기 회장단의 임기 말인 2017년 12월말까지입니다.

부디 서슴지 마시고 학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회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아래에 제시된 회비 납부 현황을 참조해주시시오.

## 회비납부

### ▶ 회비 납부 현황

2016년 12월 31일 현재 학회비 납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내주신 학회비는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되어 학회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회비 납부를 하였으나 아래 명단에 누락된 경우에는 karusist@naver.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 ▲ 특별회비 출연해 주신 분 (2015~2016)

이규환 회장 1,000,000원

최 선 전 회장 3,000,000원

이강은 전 회장 2,000,000원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경북대 토대사업팀(연구책임자 김정일) 500,000원

\* 특별회비를 후원해 주신 이규환, 최 선, 이강은, 조주관 선생님과 경북대 토대사업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회비는 학회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특별회비 출연해 주신 분 (2009~)

전명선 전 회장 1,000,000원 (2014)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4)

변현태 전 부회장 1,000,000원 (2014)

김정일 부회장 1,000,000원 (2014)

조주관 전 회장 500,000원 (2013)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2)

석영중 전 회장 1,000,000원 (2011)

열린책들 2,900,000원 (2010)

최성호 전 회장 1,000,000원 (2009)

▲ **평생회비 완납(1997년~2016년 12월 31일 현재)**

고영랑, 권경준, 김경태, 김규중, 김선명, 김선안, 김세일, 김용화, 김정아, 김정일, 김진규, 김진영, 김철균, 김혜란, 김희숙, 문석우, 박선영, 박재만, 박종소, 박현섭, 박현아, 박형규, 박혜경, 박혜옥, 백경희, 백승무, 백용식, 백준현, 변현태, 서상범, 석영중, 송인필, 심민자, 심성보, 심지은, 안병용, 안병팔, 안혁, 오원교, 오종우, 유승만, 이강은, 이규환, 이기웅, 이기주, 이남경, 이대우, 이득재, 이명현, 이영의, 이장욱, 이재혁, 이준형, 이지연, 이항재, 이현숙, 이형숙, 전명선, 전병국, 전정욱, 전지용, 정명자, 정보라, 조미경, 조유선, 조주관, 조혜경, 차지원, 천호강, 최건영, 최병근, 최선, 최성호, 최정현, 최종술, 최진석, 최진희, 한예경, 허승철, 허효영, 홍대화, 홍순미, 홍지인 (이상 83인)

▲ **평생회비 부분납(2016년 12월 31일 현재)**

김민아, 민경현, 서선정, 윤새라, 윤영순, 이수현(이상 10만 원), 김태욱, 정영주, 홍택규(이상 15만 원), 안지영(20만 원), 김상현(25만 원) (이상 11인)

▲ **평생회비 한 번 더 내주신 분(2016년 12월 31일 현재)**

심성보(50만 원), 이명현(30만 원) (이상 2인)

▲ **연회비 납부(2016년 12월 31일 현재)**

길윤미, 김연경, 김윤영, 김종민, 박미정, 박선진, 성동기, 신보람, 신혜조, 임수영, 임혜영, 조규연, 황서경, (이상 13인)

▶ **2017년도 회비 납부 안내**

2017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아래 계좌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입회비는 2만원이며, 정회원의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생회비는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 전임교원 연회비: 5만원
- ▲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 ▲ 전임교원 평생회비: 50만원
- ▲ 비전임교원 평생회비: 30만원

\* 입금하실 계좌번호는 **외환은행 620-251567-493 이규환**입니다.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입금 내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연회비, 홍길동평생회비)

한 국 러 시 아 문 학 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02856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108 고려대학교 청산MK문화관 503호 러시아CIS연구소 내 한국러시아문학회 사무국

TEL: 010-3549-4759 학회 홈페이지: www.russian.or.kr